

예수와 여성들

벤 위더링턴 3세(Ben Witherington III)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1년 5월 · 2026년 10월 개정

최근에 예수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문화와 종교의 일부였음이 너무나 분명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틀을 의도적으로 허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평등주의적 견해**, 그리고 제자로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등하게 보는 견해만이 그분의 세계관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예수의 견해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은 학계에서도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네 복음서의 관련 자료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점점 더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자리에 관한 우리 자신의 현대적 관심사에 맞추어 예수와 그분의 견해를 빚어내려는 또 하나의 시도가 아닌지 물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어떤 의도(미리 정해 둔 입장이나 사전 결정)를 가지고 성경 본문에 다가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는 것을 자주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진리를 부분적으로는 밝히고 부분적으로는 가리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우리의 전제와 본문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버트 펑크(Robert Funk)가 언젠가 말했듯이, 방법론은 중립적인 그물이 아닙니다. 방법론은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잡습니다.

예수의 사역에 나타난 여성들에 관한 물음에서, 본문 속에 자기 의도를 읽어 넣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관련 자료를 신중하고 포괄적이며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본래의 역사적 환경에서 그 저자와 청중에게 무엇을 뜻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오늘날, 저자가 그때 말하고자 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뜻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연구서 “Women in the Ministry of Jesu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에 담긴 자료의 일부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된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나라, 곧 그분의 신자 공동체에서 여성에게 합당한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직접 다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10-12를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그분의 나라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마 19:10-12] “제자들이 그에게 말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렇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것이 주어진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이 만든 고자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Elberfelder 성경,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

이것은 얼핏 보기에 그다지 급진적인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 교사들은 창세기 1:28이, 몸이 건강한 모든 사람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명령한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독신으로 남는 것은 정당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고자를 하나님께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남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왜 스스로 독신으로 남으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해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의 사역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삶에서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가능성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로부터의 급진적인 이탈을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성의 자리가 오직 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름난 랍비의 제자가 되거나, 회당 예배를 인도하도록 훈련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 10:38-42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런 유대적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눅 10:38-42]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그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도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시중드는 일로 몹시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 마음 쓰이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마음이 어지럽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인 유대인 안주인의 역할을 맡고, 마리아는 귀 기울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발치에 앉다”(10:39)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뜻의 전문 용어로 자주 쓰이며, 여기서도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부엌일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것을 막지 않는다고 예수께 불평까지 하자, 이야기는 꽤 놀라운 방향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음식 대접하는 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대접하는 안주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가 될 권리, 아니 더 높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다른 곳의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단호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성 제자들

누가복음 8:1-3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추문으로 여겨졌을 사실입니다. 그 여성들은 아마 그분 제자들의 아내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8:1-3] “그 뒤에 그가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열두 제자가 그와 함께 있었고, 악령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그리고 자기 소유로 그를 섬기던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예수께서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으신 것은 아마도, 그분이 여성들과 다른 권리를 빼앗긴 집단들에게 그분의 공동체에 자유롭고 동등하게 다가올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8:1-3에서 우리는 또한 이 여성들이 나중에 남녀 집사들이 맡게 된 기능들을 공동체 안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물질적 필요와 안녕을 돌보았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

육신의 가족에 대비되는 믿음의 가족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31-35 같은 본문과 그 평행 본문들을 보면, 예수께서 그분의 공동체에서 자리를 주장할 근거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막 3:31-35]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무리가 그를 둘러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자기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실제로 마가복음 3:21 이하(요 7:5 참조)는 예수와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오히려 그분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0:29-30, 누가복음 12:49-53과 그 평행 본문들, 그리고 누가복음 9:57-62 같은 본문들은, 예수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본적인 관계 단위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한 육신의 가족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이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이 예수께 대한 충성 문제로 갈라져 신자들의 몸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나누려 한다면, 믿음의 가족이 우선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31-35가 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 안의 형제자매가 우선적으로 신의를 지켜야 할 일차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면, 예수의 충성이 어디에 있었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어디에 충성하기를 기대하셨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도는 덜하지만 랍비들과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때때로 제자는 “자신을 장차 올 세상으로 데려가는” 스승에게 첫째 충성을 바쳐야 하고, 그다음에야 “자신을 세상에 데려온” 부모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원리를 더 급진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적용하셨습니다(눅 11:27-28; 12:49-53 참조). 교회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에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여성의 증언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예수의 견해를 보여 주는 부수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자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이야기의 여러 가지 점이 여성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첫째, 유대 교사들은 유대인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들, 특히 낯선 여자들과 거의 또는 전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평판이 나쁜” 여자나 “이방 출신의” 여자에게는 더더욱 해당했습니다. 랍비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모태에서부터 월경하는 여자들”, 곧 언제나 부정하고 만질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이 여자와 이야기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와 이야기하실 뿐 아니라, 그녀를 부정한 사람으로 대하기를 거부하시고, 넷째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신학적 대화 가운데 하나로 그녀를 이끄십니다. **이것은 그녀 같은 여자조차 신학적 가르침을 받기에 알맞은 사람이며, 실로 제자가 되기에 알맞은 후보였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넷째 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남성 제자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음식을 구하느라 바쁜 동안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해 듣고자 예수께 나아왔습니다(4:39).** 4:37-38의 비유는 그 여자가 씨 뿌리는 이나 거두는 이 가운데 하나임을 암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복음서 기자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제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보여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로 삼으신 일입니다(요 20:17-18).

예수와 정결 규례

예수께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신을 만지는 것(눅 7:15)이나 죄 많은 여자가 만지는 것(눅 7:36 이하), 또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만지는 것(막 5:27 이하)을 부정하게 되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7:1 이하의 예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7:19하).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있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거나 사람에게 닿는 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7:15).

다스림과 섬김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믿음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여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본문은 누가복음 22:24-30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가 그분을 따르는 이들 위에서 어떤 종류의 지도나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는지 정의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방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수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으뜸이 된다는 것은 분명 가장 높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특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권위를 가지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리더십 모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전후에 열두 남자를 택하고 세우신 것은, 그분이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리하려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개념이 무엇을 뜻하든, 복음서 기자들은 분명 그것을 여성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다거나(요 20:17-18),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남성 지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행 18:24-26) 뜻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이혼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이야기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다른 한쪽 면은 전통적인 육신의 가족 구조를 강화하고 그것을 여성에게 더 공정하게 만들려는 예수의 관심을 말해 줍니다.** 결혼, 가정, 이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 이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27 이하에서 간음 금지를 분명히 더 엄격하게 하십니다. 그 금지는 몸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마가복음 10장 참조)에서 이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는, 혼인이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면(예를 들어 근친 간의 결합이었던 경우) 그분의 견해는 “이혼 불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9:10에 나오는 제자들의 대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일부 랍비들이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를 그저 전통적인 유대 논쟁의 한쪽 편에 서 계신 분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지 의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처음 받은 청중은 분명 예수께서 “이혼 불가”를 가르치셨다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께 이혼은 간음이며, 재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의 결합은 아마 죽음을 제외하고는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19:9; 막 10:11-12; 눅 16:18). **마태복음 19:8-9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모세의 입장과 대조하십니다.** 모세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시기에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와 의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아무리 어렵고 논란이 되었다 해도, 그것이 여성에게 미친 전반적인 효과는 여성이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훨씬 더 많은 안정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랍비는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거나, 지금의 아내가 아침 식사를 태우면 이혼하고 재혼해도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의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그런 변덕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마태복음 19:9(5:32)가 간음으로 인한 이혼을 허락한다 해도(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남자들의 이혼할 자유를 크게 줄이셨습니다(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53-8:11도 예수께서 이중 잣대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함께 붙잡혔을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이 유대 장로들은 이 경우에 여자의 죄를 남자의 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방식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녀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진짜 정죄는 사회의 “더 약한”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제도를 향합니다.** 나중에 그분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에게서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속여 빼앗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막 12:40과 평행 본문). 예수께서는 또한 나이 든 부모가 경건을 핑계로 자기 자녀들에게 권리를 빼앗기는 일에 깊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막 7:9-13). 우리는 또한 아이들이 예수의 사역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분께 나아올 권리를 고집하셨습니다(막 10:13 이하). 예수께서는 가족을 잃은 여성들(눅 7:11 이하; 요 11장), 병든 가족을 둔 여성들(막 7:24 이하), 또는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여성들(눅 8:1-3)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들과 나누신 교제(요 12장; 눅 10장)와, 쓰러린 마지막 순간까지 (열두 제자보다도 더) 그분께 보인 그들의 신실함은, 예수와 이 여성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여성들은 몇몇 남성 제자들에게는 그 말조차 믿을 수 없는 가장 작은 제자들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눅 24:11). **이 모든 것은, 유대교에서 여성이 가졌던 제한된 지위와 비교할 때, 여성이 예수의 공동체에서 말할 수 있었던 역할들이 매우 주목할 만하게 높아졌음을 가리킵니다.** 유대교에서는 매달의 부정함 때문에 여성이 회당에서 토라를 읽거나 지도 회의의 일원이 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연구해 보면, 예수께서 모든 점에서는 아니더라도 많은 점에서 동시대 유대인들과 달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께서 자신이 살던 유대 환경을 오랫동안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향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의 엄격한 거부는 사실상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독신이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인 아닌 정당한 소명이라는 예수의 견해는, 남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의무에 관해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지배적인 견해와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가 가장 강했던 곳은 바로 그분의 고향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바로 이 가르침이 여성들로 하여금 예수의 공동체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도 맡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여성을 여러 방식으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랍비들과 충돌하셨습니다.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이방인조차 예수께서 “이중 잣대”를 거부하심으로써 평등을 너무 멀리 밀고 나가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유대 저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의 입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본성, 능력, 종교적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지닌 가치와 증거력에 대한 예수의 평가가 그 시대 사람들 전부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보다 높았다고 볼 근거도 있습니다(요 4:27-42 참조).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믿음의 가족의 요구가 육신의 가족의 요구보다 우선한다는 예수의 가르침(막 3:31-35; 10:29-30 참조)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불쾌하게 여겼을 몇 가지 상황도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남편이 아내가 집과 가족을 떠나 떠돌이 유대인 설교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기꺼이 허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복음 8:3은 아마도 구사의 아내 요안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때문에 예수께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시거나,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 지중해의 여러 문화 모두에 어느 정도**

존재하던 가부장적 틀을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르반, 부모 공경, 이혼, 어린이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분이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거부하는 편에 서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마태복음 5:27-32와 요한복음 7:53-8:11이 어떤 단서를 준다면, 예수께서는 남편과 남성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도덕적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남자를 그분의 새 공동체의 지도자로 택하신 것도, 그분이 자신이 활동하던 가부장적 틀을 거부하기보다 개혁하려 하셨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결법에 관한 가르침, 안식일에 한 여자를 고치신 일,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자와 기꺼이 대화하신 일 같은 예수의 몇몇 말씀과 행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불쾌한 것이었지만, **예수의 고향이라는 맥락 밖에서는 아마 그리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지도자의 제자가 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예수의 태도도, 유대인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시대의 많은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에게는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과 그 역할에 대한 예수의 견해는 그 시대의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런 문제에서 쿰란 공동체 사람도 아니었고 전통적인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 집단과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그분이 꾸며 낸 이야기에서든 실제 이야기에서든 여성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그분을 따르는 이들 앞에 세우신 것은 랍비 문헌에서도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며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라고 하신 그분의 부르심은 세례 요한과 쿰란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고 특히 유대적 맥락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 사이에 통용되던 여성과 그 역할에 대한 견해를 독특하게, 때로는 급진적으로 개혁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여성에 대한 새롭고 더 열린 태도를 위해 여전히 설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셋째와 넷째 복음서 기자는 여러 여성을 청중을 위한 신앙의 본보기로 제시하려고 애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이 새로운 태도는 예수의 공동체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유대교가 여성들에게 제공한 것과 비교할 때, 예수의 공동체는 지위와 역할 면에서 여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우선,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서(예를 들어 로마서 16장)에서도 기독교 메시지가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역할과 동등한 지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는 남성만 참여할 수 있거나, 잘해야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만 여성의 참여를 허락하는 제의가 많았습니다. 또 회당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있던 여성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성 개종자들에게 잘해야 제한된 자리만 주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기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랍비들의 규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회당을 세우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minyan, 미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유대교의 언약의 표징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서 그 종교적 어머니인 유대교와 달랐던 이유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명은, 예수께서 종교 관습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던 성경적 전통과 랍비 전통 모두와 단절하셨고, 여성의 가치나 그들의 증언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는 부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함께(일부 이방

제의에서처럼 남성들과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에 온전히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나 많은 이방 제의에서 여성들이 갖지 못한 권리였습니다.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여성들을 그분의 제자와 여행 동반자로 기꺼이 받아들이신 일(눅 8:1-3; 10:38-42 참조), 그리고 고자에 관한 가르침과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지에 관한 가르침은, 여성들이 그분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실질적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믿음의 가족에 들어오는 데 다른 어떤 조건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들이 예수의 교회에서 말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맡았던 역할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누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일을 맡았다는 것, 특히 부활 이후의 교회에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서 기자는 여성들이 이제는 예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서이기는 하지만, 꽤 자주 대접이나 물질적 후원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그대로 다시 맡았다는 단서를 줍니다(눅 8:3; 행 9:36-42 참조). 그런 역할은 그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필요한 한 가지”(눅 10:38-42)를 택하거나 그것에 대해 더 배우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한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공동체는 유대인 여성들보다 이방인 여성들에게 더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지위와 역할 면에서는 이방인 여성들보다 유대인 여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유대인 여성에게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남는 것, 또는 심지어 어린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은, 모두 그녀가 예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는 유대인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아주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일들 외에도 이방인 여성과 유대인 여성을 모두 크게 끌어당긴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새로운 자기 이해와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 출발, 그리고 그 스승이 특별히 억눌린 이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향하셨던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역할들은, 그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이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여성들이 예수의 공동체로 몰려든 이유를 설명해 주는 요인입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여성들이 예수에 관한 진리, 특히 그분의 죽음과 장사, 빈 무덤, 부활하신 분으로서의 나타나심에 관한 진리를 믿을 만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 케리그마의 결정적인 부분이 예수를 따른 여성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실을 미화하려 하지 않은 것은 복음서 기자들의 공로입니다. 오히려 첫째 복음서 기자, 누가, 넷째 복음서 기자, 그리고 아마 마가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사실을 부각합니다.**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누가가 예수를 따른 여성들의 증언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 증언의 타당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눅 24:1-10, 12 참조). 넷째 복음서 기자가 마르다의 고백을 어느 정도 그의 청중을 위한 본보기로 제시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요 11:27; 20:31 참조). 더 나아가 부활 이야기들은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증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이 공동체의 증인이자 참여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이 자료를 더 깊이 살펴볼 시간도 지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에서 여성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여성들이 그분의 말씀과 행적과 사역에서 중요한 자리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셨고, 동시에 편견과 이중 잣대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특히 유대인 여성들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새로운 종교적 권리와 기능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페미니스트”로 보든지 “전통주의자”로 보든지 하는 새로운 이분법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두 용어 가운데 어느 것도, 두 극단 가운데 어느 것도 예수와 여성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합니다.** 다른 많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향한,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한 예수의 사역도 단순한 범주화를 벗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바울이 이어 간 건강한 균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것이나 그분이 확인하신 옛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무시한다면, 육신의 가족을 더욱 산산조각 내거나, 하나님의 여성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소멸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지 위험에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벤 위더링턴 3세의 친절한 허락을 받아 게재함.

영어 원문: Ben Witherington III, “Women in the Ministry of Jesus”, *Ashland Theological Journal* 17 (1984), 22–30쪽.

강조는 독일어 번역자가 한 것입니다.